

## 부산출신 의열단원 연구

김혜진\*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국내외 의열투쟁과 의열단
- III. 부산의 지역성과 부산출신 의열단원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 어느 지역보다 일본과의 관계가 깊었다. 개항 이후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부산은 수탈의 대상이자 침략의 발판이었고 이에 항거하는 수많은 독립운동 사건과 독립운동가들이 생겨났다. 부산에서도 박재혁 의거를 비롯하여 의열단과 관련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의열단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면서 그 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의열단과 김원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의열단에 대한 내용은 단장 김원봉과 몇몇 의열단원들이 만들어낸 의열투쟁 같은 단면들뿐이다. 의열단이 3.1운동을 전후 한 독립운동방략의 중간다리역할을 했던 의열투쟁의 상징적인 단체였음에도 의열단에 관한 연구는 개별적이고 소략적인 연구에만 그쳐있다. 또한 의열단의 초기 단원들이 대부분 밀양지역 출신의 사람이

\* 경성대학교 교양교육학부 외래교수 / [ekfejddl@ks.ac.kr](mailto:ekfejddl@ks.ac.kr)

기에 의열단에 관한 연구가 밀양지역 연구자, 중앙의 독립운동 연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지역적 초점이 밀양으로만 치우쳐져 있다. 의열단은 창단과 활동 전반에 걸쳐 부산이라는 지역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즉 박재혁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의열단원의 활동, 의열단 활동 이후로 이어지는 조선혁명간부학교와 조선의용대 등의 활동에 부산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부산출신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현재 124명이다. 이 중 의열투쟁으로 나타나 있는 독립유공자는 오재영·최천택·김병태뿐이다. 이들은 박재혁과 함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기에 운동계 열이 구분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열단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 사람 이외에도 의열단에 가입했고 이후에 김원봉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찾을 수 있다. 의열단의 활동은 한반도의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단원들의 행적은 일본, 밀양과 가까웠던 부산에서의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부산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의열단 활동에 가담했음을 연결 지을 수 있다. 박차정, 박문희와 김원봉의 관계, 최장학, 이동화의 조선혁명간부학교의 활동 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앞으로 기존의 알려진 부산지역 의열단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부산과 의열단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의열단, 의열, 박재혁, 김원봉, 부산경찰서, 부산

## I. 머리말

지난 몇 년간 ‘암살’, ‘밀정’ 같은 의열단과 관련된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되었다. ‘암살’에서는 실제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로 불렸던 남자현 열사의 의열투쟁을 모티브로 하였고 ‘밀정’은 암살에서보다 더 많은 의열단원들이 등장한다. 밀정의 큰 줄거리는 황옥 경부의 폭탄반입 사건으로 그 속에 실제 인물인 황옥·김시현·현계옥·마자르 등과 의열

단장 김원봉을 녹여내어 영화의 몰입도를 더하였다. 이러한 영화들의 흥행은 자연스럽게 의열단과 단장인 김원봉, 의열단의 의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3.1 운동 직후인 1919년 11월에 창단된 의열단은 단장 김원봉을 중심으로 1926년까지 국내외 다양한 의열의거를 일으켰으며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을 조직한 후 급진좌파 성향으로 변해갔다.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임시정부 등과 좌우 대통합을 추진하였다. 귀국 후 해방정국에서 좌우합작을 주도하였으나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월북하여 58년 김일성정권에 의해 숙청되었다.

김원봉의 월북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굴레 속에 그와 의열단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켰다. 일제강점기 의열의거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여전히 김원봉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된 공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열단에 대한 연구 또한 김원봉 그 자체나 단체 활동에 대한 소략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의열단에 관한 연구는 의열단 창단과 단체에 관한 연구(김승곤 1982, 이명숙 1992, 김태완 1996, 박영모 1998, 김영범 2017),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비롯한 의열단 사상에 관한 연구(오장환 1882, 신동일 1886, 김영범 1994, 박한용 2000, 윤상필 2003), 의열단의 의거와 인물들에 관한 연구(한홍구 1988, 김희곤 1994, 황용건 2008/2015, 김재승 2009, 이승원 2012, 김명섭 2015, 한에라 2015, 이명화 2015, 김영범 2017)가 주를 이루고 드물게 기독교, 대종교 등의 종교와 의열단(김상현 2007, 박성경 2004), 밀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적 연구(김승 2004, 전성현 2011)<sup>1)</sup>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독립운동단체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의열단 개개인의 인물에 관한 집중적인 조명은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

1) www.riss.kr ‘의열단’ 검색 (2018년 12월 현재)

부분의 연구는 의열단과 의열단 인물에 대한 것으로 의열단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자와 연구논문의 비중은 다른 독립운동가나 활동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의열단원에 관한 생애와 활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의열단의 대표적인 의거를 수행했던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과 창단을 지원한 인물로 알려진 황상규, 김대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의열단의 창단과정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기 의열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다음은 이종암,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등 실제 의열의거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의열단 방략인 7가살 5과괴를 실현한 인물들로 당시의 신문기사·판결문 등을 통해 그들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의열단 인물연구 중 이육사와 나혜석은 의열의거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인물로 의열의거와 더불어 문학가로서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적 방향과 문학사적 방향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의열단원 중 앞서 언급한 이육사와 김지섭은 안동 출신으로 안동사학회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드물게 의열단의 활동에서 언급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의열의거를 전개하지 않았던 김한의 연구논문도 있다. 의열단의 활동은 3.1운동 이후 이루어진 무장투쟁운동의 가장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후 독립군의 형성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계열의 비밀결사 단체임을 감안하고 시대적 상황과 자료의 한계를 고려함에도 아직까지 의열단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의열단은 그 창당과정부터 밀양을 중심으로 한 인물과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인물이 추축을 이루었고 초기 의열단 활동은 임시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었다. 의열단은 첫 의거인 밀양·진영 폭탄반입 사건부터 임시정부의 주비단과 협력하여 거사를 도모한 나석주의 의거까지 요인 암살과 식민통치기관 파괴활동을 실행하였다. 1930년대 이후의 활동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경남지방 독립운동 투사들의 지원 아래 유지될 수 있었다. 의열단의 의거 중 박재혁의 의거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소극이 아닌 적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더불어 의열단 내부에서는 밀양·진영 폭탄반입 사건의 실패를 만회하였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의열·파괴활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박재혁 의거의 성공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어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의거로 이어지는 등 이후 의열단 의거의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은 박재혁의 단독 의거가 아니라 부산출신 독립운동가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부산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의열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부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거사를 도모하게 된 이유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산과 의열단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있지 않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부산출신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된 독립운동가들 중 대한 의열단과의 관계된 독립운동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국내의 순국·의열투쟁과 3.1운동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의열단을 같은 맥락의 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부산이 항일독립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특성과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을 연관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국가공훈록에 등록되어 있는 124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열단과 관련인물들을 활동을 통해 의열단과의 관계를 찾아내고자 한다. 의열단은 창단부터 밀양지역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시작하였지만 국내 의열의거를 전개함에 있어 부산은 일제의 식민발판으로 의열단에게는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의열단의 활동에 부산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국내외 의열투쟁과 의열단

### 1. 국내 의열투쟁과 의열단 창단

#### 1) 국내 의열투쟁

한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하자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족독립운동이 나타났다. 무장투쟁론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저항하였고 실력양성론자들은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이 이외에도 외교활동을 통한 저항이나 상소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민족운동 가운데 투쟁성과 순수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순국과 의열투쟁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우리 민족은 국가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대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국 활동을 벌이거나 직접 불의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의열투쟁에 가담하였다.<sup>2)</sup> 순국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죽여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말하고, 의열투쟁은 한 명 내지 소집단이 무기를 가지고 대상을 직접 살해하거나 파괴공작을 의미한다.

최초의 순국은 한말 관료였던 이한웅(1874~1905)의 음독자살이다. 그는 국권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외교관으로 영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발발 후 영일동맹이 강화되자 1905년 4월 말부터 와병하다가 5월 12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독약을 마시고 자결 순국의 길을 택했다.<sup>3)</sup>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 각계각층의 반일상소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순국자들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민역환의 할복자결로 이 사건은 민중들의 추앙심을 이끌

2) 오영섭, 『한말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5쪽.

3) 손세창 편, 『순국열사이한웅선생약사』, 문예홍보사, 1958, 41쪽.

어났으며 항일운동과 매국대신 처단활동<sup>4)</sup>으로 이어졌다. 순국은 대신 고관들 뿐만 아니라 전직고관, 하급관료, 평민, 외국인 등 다양하게 일어나<sup>5)</sup> 일본의 조선침략이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일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는 민중의 항쟁을 일으켰고 이완용 등의 매국행위를 질타하는 홍태순, 이규응의 자결이 이어졌다. 연이어 군대가 해산되자 대대장 박성환은 통탄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찢러 자결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한국군대가 하나로 결집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일본 군에 의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후 해산된 군대는 의병과 합류하여 의병들의 항일활동 내용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박성환의 자결과 한국군대의 항쟁은 의병운동에서 독립군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무장독립전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열사들의 의열투쟁이 이어졌는데 장인환과 전명운의 스티븐스 척살사건, 안중근의 이토히로부미 척살사건, 이재명의 친일파 척살사건 등이 일어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를 개탄하며 자결순국의 길을 택한 사람이 64명에 달하였다.<sup>6)</sup>

강점 이래 10년간의 무단통치 하에서도 여러 비밀결사들이 활동하며 항일투쟁은 계속 확대되었다. 특히 대한광복회의 친일부호 처단은 3.1 운동 전후의 의열투쟁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었다. 이 논고에서 다루는 의열단의 의열투쟁 이외에도 국내외에 다양한 의열투쟁 단체들이 3.1운동 전후 결성되어 활동하는 가운데 개인의 의거 또한 이루어졌

4) 원태우의 이토히로부미 저격활동, 기산도의 을사오적 처단거사, 나인영의 을사오적 격살의거, 자신회의 활동, 정재홍의 이토히로부미 포살미수 의거 등은 대표적이다.

5) 대신급: 민영환, 조병세 전직고관: 홍만식, 송병선, 이명재, 이철 하급관료: 이상철, 이진석 등 평민: 김봉학, 인력거꾼 외국인: 여중, 반종래, 서판풍 등(손세창 편, 앞의 책, 83~84쪽 <표 3> 참조).

6) 오영섭, 앞의 책, 83~84쪽 <표 8> 참조.

다.7) 즉, 순국·의열투쟁은 한말 민영환의 자결이나 안중근의 이토히로 부미 척살에서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로 이어졌다. 이들의 투쟁은 3.1운동 이후 의열단의 거사로, 이후에 무장독립투쟁으로 이어져 일제강점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 2) 의열단 창단

3.1운동은 한국인 대다수가 식민통치를 거부한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의 일환이었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민족 독립의 목표는 끝내 이루지 못하였고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의해 민중들이 큰 희생을 치루며 종결되었다. 이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비폭력 시위운동에 한계를 절감했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음을 자각했다. 또한 3.1운동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외 특히 중국 만주로 망명하여 상하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실질적으로 우리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인을 훈련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시간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충분치 않았다. 이때 강우규가 실행한 남대문역 폭탄의거는 적은 인원, 적은 비용, 적은 희생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독립운동에 한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의열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1919년 11월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신흥무관학교와 김원봉의 고향인 밀양출신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조직된 의열단은 공약 10조와 7가살 5과괴를

7) 27결사대의 매국노 암살계획, 구국모험단의 폭탄제조 및 밀정 처단, 강우규(대한국민노인동맹단)의 남대문역 의거, 서간도의 대한독립단, 대한독립단 국내지단:호굴독립단, 임시정부 주도의 의열투쟁: 나석주는 임시정부 하의 의열투쟁 단체인 주비단 소속인데 의열단과 연합하여 조선총독부 의거를 감행하였다.



목표로 내걸었다.<sup>8)</sup>

<p>공약 1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함</li> <li>2.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하여 신명을 희생함</li> <li>3. 충의의 기백과 희생정신이 확고한 자라야 단원이 됨</li> <li>4. 단을 세운 뜻을 우선시하고 단원의 의리를 지킴을 급무로 삼음</li> <li>5. 의백 1인을 선출하여 단을 대표토록 함</li> <li>6. 언제 어디서든 매월 1차씩 사정을 보고함</li> <li>7. 언제 어디서든 부름과 모임에 반드시 응함</li> <li>8.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단의를 위해 목숨을 바침</li> <li>9. 하나가 아홉을 위하여 아홉이 하나를 위하여 헌신함</li> <li>10. 단의를 거스르거나 배반한 자는 처살함</li> </ol>
<p>7가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총독 이하의 고관</li> <li>2. 군부 수뇌</li> <li>3. 대만총독</li> <li>4. 매국적</li> <li>5. 친일파 거두</li> <li>6. 적탐</li> <li>7. 반민족 토호열신</li> </ol>
<p>5파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총독부</li> <li>2. 동양척식회사</li> <li>3. 매일신보사</li> <li>4. 각 경찰서</li> <li>5. 기타 왜적 중요기관</li> </ol>

## 2. 의열단의 국내의거

의열단은 창립 이래 1920년 3월부터 1926년 12월까지 국내로 폭탄을 반입하거나 일제의 주요시설물 파괴, 일본인 고관암살 등 국내거사를 추진하였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김원봉은 동향선배이며 친척인 김대지, 황상규의 조력 하에 신홍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이종암, 이성우, 신철휴, 서상락, 강세우 한봉근, 한봉인 등과 뜻을 모았고 이후 지린에서 윤세주, 이성우, 광재기, 강세우, 이종암, 한봉근, 한봉인, 김상윤, 신철휴, 배동선, 서상락 등 13명이 모여 의열단을 결성했다. 의백에 김원봉이 추대되었다. 의열단의 창당 단원에 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 1) 밀양 · 진영 폭탄반입사건

의열단의 첫 번째 거사는 1920년 3월과 동년 5월의 밀양 · 진영 폭탄 반입사건이다. 의열단원 곽재기가 만주 안동현에서 밀양 김병완에게 보낸 폭탄이 경기도경찰부에 탐지되어 폭탄 3개가 압수되고 가담자 18명 중 12명이 일경에 검거된 것이 밀양 폭탄반입사건이다. 동년 5월 이성우가 폭탄 13개와 권총 2점을 안동현 이룡양행을 통해 진영의 강원석에게 보낸 것이 일경에 덜미를 잡혀 가담자 6명이 검거된 것이 진영 폭탄 반입사건이다.<sup>9)</sup> 이 사건으로 곽재기는 징역 8년형을 언도받았고 의열단 창단의 정신적 지주였던 황상규 또한 이 사건으로 피체되어 7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후 신간회 서기장을 역임하다 1931년 9월 신병으로 별세하였다.<sup>10)</sup>

## 2) 부산경찰서 투척사건

1920년 9월 14일 부산 좌천동 출신의 의열단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하시모토 서장 등 3명이 즉사하였고 박재혁은 그 자리에서 투옥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9개월 만에 고문과 단식으로 사망하였다.<sup>11)</sup>

## 3)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사건

1920년 12월 27일 최수봉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밀양경찰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폭탄은 순사부장의 오른팔에 맞고 떨어져 불발에 그쳤고 복도를 향해 던져진 폭탄은 위력이 약해 식기와 다

9) 『동아일보』 1920. 7. 30. ‘朝鮮總督府를 破壞하라든 爆發彈隊의 大檢舉’.

10) 『동아일보』 1921. 6. 22. ‘郭在驥는 懲役八年’. 1931. 9. 4. ‘前新幹會書記長 黃尙奎氏 別世’.

11) 『동아일보』 1921. 5. 17. ‘大邱에 收監中인 朴在赫은 病死’. 부산경찰서 투척사건은 부산지역과 관련하여 뒤의 논고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에 소략하였다.

기 일부만 깨어지고 부서졌다.<sup>12)</sup> 폭탄을 던진 최수봉은 달아나다 황석윤의 집 부엌에서 식도를 찾아 자기 목을 찔렀다. 순사들이 실신해 있는 그를 급히 재등의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형선고 13분 만에 사망하였다.<sup>13)</sup>

#### 4) 조선총독부 폭탄투척사건

1921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 청사 2층 회계과와 비서과에 폭탄이 투척된 사건이다. 비서과의 폭탄은 불발되었으나 회계과에 투척된 폭탄의 폭발로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이 사건은 배후자를 잡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빠졌으나<sup>14)</sup> 이듬해 일본육군대장 다나카 암살저격사건으로 김익상이 체포되면서 주동자가 김익상임이 밝혀졌다.<sup>15)</sup>

#### 5) 상하이 황포탄의거

1922년 3월 28일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이 상하이의 무역항인 황포탄에서 일본육군대장 다나카를 암살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다. 오성륜이 다나카를 저격하였으나 옆의 영국여성이 맞았고 김익상의 저격 또한 다나카의 모자를 관통하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이종암이 다나카가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로 실패하고 말았다.<sup>16)</sup> 그 자리에서 김익상과 오성륜은 체포되었고 오성륜은 탈옥하였다. 김익상은 20년형을 선도 받았으나 감형되어 출옥 후 일경에 의해 암살당하였다.<sup>17)</sup>

12)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2000, 57쪽. 염인호, 『김원봉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48쪽.

13) 『매일신보』 1921. 1. 20. ‘爆彈犯 崔壽鳳’.

14) 『동아일보』 1921. 12. 28. ‘總督府爆彈事件으로 始하여 辛酉年의 重大事件’.

15) 『동아일보』 1922년 5월 20일 「總督府爆彈犯은 上海의 爆彈犯 金益相」.

16) 박태원, 앞의책, 79~83쪽

17) 『동아일보』 1922. 5. 6. ‘吳相崙은 破獄逃走’. 『동아일보』 1927. 2. 9. ‘金益相’. 박태원, 위의책, 91쪽

상하이 황포탄의거 이후 김원봉은 의열단의 이념과 투쟁목적을 알리는 체계적인 선언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무정부주의자였던 신채호에게 부탁하여 1923년 1월 <조선혁명선언(의열단선언)>을 발표한다.

#### 6)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투척되어 종로경찰서 서편창이 파괴되어 종로네거리가 일대 마비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주모자를 찾지 못하였으나 밀정의 밀고로 1월 17일 삼판통에 잠입한 일경들과 김상옥이 총격전을 벌이고 남산으로 피신하였다. 22일 효제동에 피신해 있던 김상옥을 일경이 급습하였고 김상옥은 일발로 자결하였다.<sup>18)</sup>

#### 7) 제 2차 암살파괴 계획

1923년 초 경기도 경찰부 소속 경부인 황옥이 의열단 단원들과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황옥은 1923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중국 텐진으로 향했고 김시현의 도움으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만났다. 황옥은 김원봉으로부터 의열단 단원들과 고성능 폭탄 36개와 권총 5개를 경성까지 운반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황옥·김시현·권동산·김재진 등과 단동과 신의주를 거쳐 경성까지 폭탄을 운반했으나 김재진의 밀고로 모든 작전이 발각되었다. 주동자인 김시현과 황옥은 12년형을 언도받고 그 외 가담했던 다수의 의열단원들이 검거, 형을 언도 받았다.<sup>19)</sup>

18) 『동아일보』 1923. 1. 15. ‘鐘路署에 爆彈投擲’. 『동아일보』 1923. 3. 15. ‘銃殺의 因으로 銃殺의 果를 結한 癸亥劈頭의 大事件真相’.

19) 『동아일보』 1923. 4. 12. ‘赤化의 烽火獨立의 猛炎 義烈團事件內容發表’. 박태원, 앞 의책, 121~129쪽

### 8) 도쿄 이종교 폭탄투척사건

1924년 1월 5일 김지섭이 일본천황의 궁성을 파괴하고자 도쿄 니주바시 이종교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그가 던진 폭탄 3발 모두 불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김지섭은 투옥되어<sup>20)</sup> 사형을 선도 받았다가 무기징형, 20년형으로 감형되었으나 28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sup>21)</sup>

의열단원 김원봉과 김지섭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이 학살된 것에 대한 울분을 삼키던 찰나 신년벽두 도쿄에 의회가 열리는 때에 학살당한 우리 동포의 영혼들을 달래주고자 의거를 계획한 것이다.<sup>22)</sup>

### 9)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폭탄투척사건

1926년 12월 28일 나석주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후 동양척식주식회사로 가서 폭탄을 투척하고 권총을 난사한 사건이다.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척된 폭탄은 불발에 그쳤고 나석주는 가지고 있던 권총을 난사하여 일본경감 다하타 유치이 등을 사살한 후 자결하였다.<sup>23)</sup>

## Ⅲ. 부산의 지역성과 부산출신 의열단원

### 1. 부산의 지역성과 독립투쟁

부산에서는 3.1운동 이전부터 백산상회의 활동으로 대표되는 조직적

20) 『동아일보』 1924. 4. 25. ‘二重橋爆彈犯人은義烈團員金社變’.

21) 『동아일보』 1928. 2. 24. ‘不向關門更問津! 金社變畢竟獄中作故’.

22) 박태원, 앞의 책, 136~137쪽

23) 『동아일보』 1927. 1. 13. ‘동아일보 호외’. 『동아일보』 1927. 1. 14. ‘警務局의 唐皇’.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신여학교, 범어사, 동래고보, 부산 제2상 등 민족학교와 민족종교가 중심이 되어 대대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1920년대에는 청년운동, 부두 노동자들의 항쟁·인쇄 직공 노조의 총파업·조선방직 노동자들의 쟁의, 신간회 운동 등 다양한 계열의 운동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는 안희제, 박재혁, 박차정, 장진상, 최천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부산의 중심이 원래의 행정구역이었던 동래에서 일 본인조계지 확장으로 형성된 동구와 중구일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행정중심의 변화는 부산 내에서도 그 지역에 따른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안희제는 물자가 활발하게 돌던 중구 동광동에 백산상회를 개업하여 민족자본을 기르고 독립운동을 후원하고자 했다. 동래지역에는 기존의 중심지였던 만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였는데 김갑, 김규직, 문시환, 박차정 등이다. 특히 동래고보는 일제강점기 민족학교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명문교이며 1940년 11월 23일 부산 제2상의 학생들과 일제의 민족차별에 항거해 부산항일학생의거를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의 3.1운동 이후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으며 또 다른 3.1 장터 만세운동으로는 조선시대부터 물자가 오가던 교역지였던 구포나루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에서도 독립투사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 부산진이다. 부산진은 부산진성을 둘러싼 전통적인 조선인 마을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방상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개항과 더불어 부산지역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나 부산진지역은 이러한 변화를 비켜갔고 부산 내에서도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부산진은 부산의 어느 조선인 마을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식민지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북빈 매축, 영선산 착평, 부산진 매축 등 동북쪽으로 시가지가 확대되어 갔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산진의 인구가 부산항 발전과 더불어 개항장 객주들이 들어섰던 초량으로 이동해갔다. 일본인들에 의해 부산에 설립된 부산궤도주식회사의 경편철도가 부산진성에서 동래까지 부설되었을 때에도 부산진은 그 선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경편철도가 전철로 바뀌면서 부산진 마을을 관통하게 되었지만 전철역은 조선인 마을의 중심이 아닌 외각에 위치하였고 더불어 경부선과 부산 동래 간 전철에 의해 조선인 마을이 두 구역으로 분리되는 공간 분할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sup>24)</sup> 이러한 부산 내에서의 지역적 분리는 전차에 의한 조선인 사망 사고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부산속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항거로 이어졌다.<sup>25)</sup> 부산진은 일제시기 내내 매립과 매축의 중심지로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대대적인 물류 유통의 중심지 및 공업지구로 확장되면서 부산진은 조선인 노동자 거주지로 심화되었다. 1917년 완공된 조선방직 주식회사는 더욱더 부산진을 식민도시 부산에서조차 변방, 변두리로 배제시켰다.<sup>2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곳에서 태어난 박재혁, 오재영, 김영주, 최천택, 김병태 등이 일찍이 일제식민지의 부당함을 인식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부산진 부근에 개교한 육영학교와 일신여학교, 부산진교회는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문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박재혁과 부산지역 의열단원들의 학적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이 이러한 근대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24) 전성현, 『일제시기 동래선 건설과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형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 2009.

25) 『부산일보』 1916. 9. 15. ‘전차 전복 사건’.

26)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130~131쪽.

27) 전성현, 위의 논문, 133쪽.

## 2.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의열단의 국내거사에서 박재혁이 성공한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의거는 의열단 내부의 활동을 넘어 한국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는 일제의 한국침략에 부산의 위치와 의열단 성립이 어떠한 종류의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짐작할 수 있다.

박재혁은 1895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15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여동생과 생활하였다. 1911년 부산진보통학교를 수료하였고 1915년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재혁이 다녔던 부산진보통학교는 당시 부산진의 지역 유지들이 설립한 한문속 육영재가 사립육영학교로, 다시 부산진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또한 부산공립상업학교는 1895년에 설립된 개성학교였다. 당시 부산 경무관이었던 박기종이 두 차례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뒤 부산에 근대식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함을 깨닫고 출자한 학교이다. 1922년 일제에 의해 교명이 부산진공립상업학교로 변경되었고 다시 부산 제2공립상업학교로 개칭하였다. 그가 다닌 두 학교는 부산지역에서도 항일독립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다. 특히 부산 2공립상업학교는 1940년 동래공립보통학교와 함께 일제의 식민지학교 차별에 항거하여 대규모 항일거사를 일으켰다.(부산항일학생의거) 이처럼 그는 학생시절부터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우며 자랐고 부산공립상업학교 재학 시절 최천택, 김병태, 박흥규 등과 함께 대한제국에서 간행한 『동국역사』를 비밀리에 배포<sup>28)</sup>하는 등 항일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최천택은 검거되었고 박재혁과 김병태 등은 일제에 ‘요시찰 인물’로 감시 대상에 들어

28) 『동국역사』는 사학자 현채가 쓴 1899년 9월에 초판된 초등학교용의 우리 역사책이다. 일제는 1910년 11월 16일자로 발급 처분하였다. 박재혁과 그 친구들은 우리 역사를 교과에서 가르치지 않는데서 우리 역사를 학생들이 알아야하겠다고 자각하여 이 책을 등사하여 학우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었다.



가게 되었다. 1913년 박재혁·최천택·김병태·오택·김영주 등 부산진의 비슷한 항렬인 친구 16명이 모여 ‘구세단’을 조직했다. 조국광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된 구세단은 활동 반년 만에 일경에 오택·박재혁·박홍규·김인태가 구속되었다가 구세단의 해체 조건으로 석방되었다.<sup>29)</sup>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한 박재혁은 1916년 부산전기가스회사 전차 차장으로 취직하였다가 친척인 박국선이 경영하는 경북 왜관의 곡물무역상으로 일했고 여기서 자금 700원을 조달해 1917년 상하이로 탈출하였다. 그곳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부산으로 귀환한 박재혁은 몇 달 동안 친구들과 접촉하며 가사 관계를 정리한 뒤 김원봉이 김병태 명의로 김영주 앞으로 위장 송금한 여비 1백 원을 받아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리고 이때 김원봉에게 폭탄과 자금 3백 원, 여비 50원을 받아 일본 나가사키와 쓰시마를 경유해 9월 6일 부산으로 들어왔다.<sup>30)</sup> 그는 입국 후 최천택과 함께 용두산공원에 올라가 부산경찰서 주변을 정찰한 다음 기념촬영을 하였다. 몇 일 후 거사 당일 오후 부산진시장 부근인 영가대에서 전차를 타고 가다가 부산역전에 내려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로 가고 최천택은 부근에서 지켜보기로 했다.<sup>31)</sup> 중국인 고서상으로 가장한 박재혁은 서장 하시모토에게 면회를 청하자 곧 인도되어 보자기에서 중국 고서를 꺼내는 척하며 폭탄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었다. 폭탄을 마루에 치자 폭음과 함께 흰 연기가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고 이때 서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경찰서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때 박재혁도 폭탄의 파편이 오른쪽 무릎뼈를 쳐서 쓰러졌고 즉시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경은 폭탄투하 교사자 김

29) 김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186쪽.

30) 김승, 위의 논문, 2007, 188쪽.

31) 최천택, 『일제하의 독립투쟁기』, 『부산의 고금』(박원표 저 수록), 144쪽.

원봉(미체포, 재상해), 공동협이자 최천택, 김영주,(체포) 오재영(체포), 김병태(미체포 재상해), 김기득(미체포 경성), 박창수(미체포 밀양)라고 기록하였다.<sup>32)</sup>

박재혁이 끝내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오택을 비롯한 공범체포자들은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났다.<sup>33)</sup> 그러나 박재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920년 11월 2일 사형을 구형<sup>34)</sup>받았고 11월 6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사형을 받았다.<sup>35)</sup> 다시 상소한 경성고등법원에서 3월 31일자로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형이 확정<sup>36)</sup>되었고 일본의 손에 죽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하여 단식을 하다 형 집행 전인 5월 10일 옥사하였다.<sup>37)</sup>

당시 부산은 1920년 9월 부산부두총파업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열단 단장 김원봉으로부터 폭탄을 전해 받은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의 식민통치기관을 파괴·응징한 것은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920년대 부산지역의 다양한 항일운동 전개는 박재혁 의거라는 연장선상에서 평가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 3. 부산출신 의열단원

부산출신 의열단원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공훈전자사료관-독립유공자 공적조서’를 참고하였다. 부산,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 중 124명이

32) 고등경찰보고,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1920. 10. 2일자)

33) 김삼근 편저, 『오택유고』, 『부산출신독립투사집』, 1982, 118쪽.

34) 『매일신보』 1920. 11. 11.

35) 『동아일보』 1921. 3. 15. ‘釜山署爆彈犯人’.

36) 『동아일보』 1921. 4. 1. ‘朴在赫은 結局死刑’ / 박철규, 『3·1운동이후 부산지역 의열활동-박재혁을 중심으로』, 3·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 2018. 10. 30. 요약발췌

37) 『동아일보』 1921. 5. 17. ‘大邱에 收監中인 朴在赫은 病死’.

2018년 현재까지 국가공훈을 받았으며 그 중 운동계열이 의열활동으로 명시된 인물은 김병태, 김영주, 오재영(이명 오택)이 있다. 세부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의열단에 가입, 활동한 인물을 살펴보면 박재혁, 문시환, 이동화, 박차정, 최장학, 최천택 등이다. 의열단에 가입하진 않았으나 임시정부 요인으로 초기 의열단 활동을 지원했던 장건상까지 총 10명의 부산지역 의열단원 및 활동자들을 파악하였다.<sup>38)</sup>

#### 1) 김병태(1899. 1. 14 - 1946)

경상남도 부산부 좌천리에서 1899년 태어났다. 1918년 봄 무단가출하여 상하이로 가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고 반일운동에 매진하였다.<sup>39)</sup> 김두봉의 동생으로 김무·김평국이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의열단의 주요단원이다.<sup>40)</sup> 1920년 9월 박재혁을 국내로 밀파,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전개하여 일본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 적극 관여했다. 1928년 상하이에서 침체된 의열단을 정비하고자 제 3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활동방향을 재정립한다. 1931년 후반부터 중국민의 반일의식을 배경으로 김원봉과 함께 1932년 장개석의 지원으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한다. 그는 32년까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항일 투쟁 사관생도를 양성하였다. 의열단원 박건웅 등과 난징에서 열린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제2차 대표자회의에 참여해 유일당 건설을 결정하였다. 1935년 7월 유일당으로 건설한 민족혁명당이 창당되자 간부로 활동하였고 이후에는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비서로 활동하였다. 19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창설되자 광복군에 지원하여 활동하

38)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사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9) 『용의조선인명부』, 용의조선인 3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0)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20권 임정편 V, 15김인태 등 체포의 건, 1991.

였으며 광복 후 김원봉과 귀국한 후 중국 난징에서 병으로 서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sup>41)</sup>

2) 김영주(1896. 9. 17 - 1930. 1. 15)

부산 사람으로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했던 김영주는 박재혁이 김원봉의 지시를 받아 폭탄을 싣고 부산행 연락선으로 귀국하자 거사에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부산경찰서 폭탄의거 준비 당시 김원봉이 김경태 명의로 김영주 앞으로 위장 송금한 여비 100원을 받은 박재혁은 상하이로 건너갔고 김원봉으로부터 폭탄 1개, 자금 300원, 여비 50원을 받아 일본을 통해 9월 6일 부산으로 들어왔다.<sup>42)</sup>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후 함께 거사에 동참했던 최천택은 가택 수색을 받아 체포되는 가운데 김영주·오택(오재영) 등 평소 감시받고 있던 친구들도 체포되었다. 공범자로 체포된 김영주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공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박재혁 또한 끝내 단독범을 주장함으로써 기소 유예처분으로 석방되었다.<sup>43)</sup>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sup>44)</sup>

3) 문시환 (1897. 8. 12 - 1973. 11. 11)

부산 연제구 연산동 출생으로 동래동명학교에 수학하던 중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가들을 돕다 3.1운동 후 안희제가 중심이 되어 1919

---

41) 전자공훈사료관(e-gonghun.mpva.go.kr)

42) 김승, 앞의 논문, 2007, 188쪽

43) 김승, 위의 논문, 2007, 191~192쪽

44) 김영주에 관해서는 전자공훈사료관(e-gonghun.mpva.go.kr)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1930년 사망하였고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사건 이후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 않아 김영주에 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향후 부산지역사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월 11월에 설립한 기미육영회 외국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sup>45)</sup> 도쿄세이소쿠영어학교 2년 수료 후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1923년 상하이 국민대표회에 경남기성회 대표로 참석했고 임시정부를 확대 개조하려는 안창호 계열의 개조파 간부로 활동했다.<sup>46)</sup> 국민대표회의가 흐지부지 끝나자 강홍렬 등 개조파들과 의열단에 입단해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자 했다. 1923년 6월 말 의열단 총회에서 일제에 대한 거사를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자금 모집을 결의하고 요원으로 국내에 밀파되었다.<sup>47)</sup> 국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다 동년 12월 29일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황옥 정부 사건에 이은 의열단 제 3차 암살파괴의거이다.<sup>48)</sup> 그는 이때 징역 2년을 언도받아 만기 복역했으며 해방까지 요시찰 대상자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회의원, 경남도지사를 지냈으며 퇴임 후 부산극장을 개관·운영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sup>49)</sup>

#### 4) 박차정(1910. 5. 7 - 1944. 5. 27)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서 태어났다. 1925년 호주장로교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동래일신여학교에 입학하여 1929년 졸업하였다. 부산일신여학교는 부산에서 3.1운동을 가장 먼저 주도한 곳이었고 박차정이 태어난 동래는 항일의 기세가 어느 지역보다 높아 많은 독립지사들이 모였던 곳이다. 박차정 또한 이미 1924년부터 조선소년동맹에 가입하여 활

45) 『동아일보』 1924. 2. 16. ‘漢銀襲擊計畫은 경비엄중으로못하게되고 구여순과는본래 물랐다고’.

46) 『동아일보』 1923. 3. 8. ‘上海國民會議의 議事內容’.

47) 『동아일보』 1924. 2. 14. ‘軍資金募集’.

48) 진성현, 앞의 논문, 137쪽.

49)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전자공훈사료관 (e-gonghun.mpva.go.kr)

동하였고 글을 쓰는 자질 또한 뛰어나 학창시절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그가 이미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이 투철했음을 알 수 있다. 박차정이 독립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27년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단체들이 설립한 근우회 활동을 하면서 부터이다. 그는 근우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선전조직과 출판부 책임을 맡았고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의 연장으로 서울에서 전개된 여학생 시위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당시 의열단의 조선공산당재건동맹에서 활동하던 오빠 박문호의 권유로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의열단에 합류한 후 단장 김원봉과 1931년 결혼하였다. 난징에서 개교한 조선혁명간부학교에서 여자부 교관으로 교양과 훈련을 담당하였고 1935년 조선민족혁명단이 결성되자 부녀부 주임으로 활동했다. 지청천의 부인 이성실과 남경부선부인회를 결성하여 여성들을 민족해방운동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38년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자 대원과 후원세력 확보하는 선무활동에 노력했다.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어깨부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sup>50)</sup>

##### 5) 오재영 (1897. 5. 24 ~ 1948. 8. 30)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사람이다. 1908년 부산진 좌천학교에 입학하였고 1909년 사립명진학교로 전학, 1912년 부산제 2상에 입학하여 박재혁·최천택 등을 만나 형제결의를 할 만큼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51)</sup> 1913년 오택·박재혁·박홍규·김인태 등이 중심이 되어 학생

50) 위 내용은 김혜진, 『박차정 의사의 독립활동 재고찰』, 부산항일학생의거 76주년 전국 학술세미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비밀결사단체인 구세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동국역사 사건으로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구세단 해체조건으로 석방되었다.<sup>52)</sup>

1920년 9월 박재혁은 김원봉의 지시를 받고 폭탄을 들고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이때 그는 박재혁이 국외에서 숨겨가지고 온 폭탄 한 개를 맡아 두었다가 1920년 9월 14일 거사를 결행하는 박재혁에게 내주는 등 박재혁의 의거를 돕다가 공동혐의자로 지목되어 피체되었다.<sup>53)</sup> 다른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재영 역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 1921년 경남진주지방에서 김두현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다 피체되어 1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감형되어 출소하였다.<sup>54)</sup> 이후 언론활동에 매진하였고 해방 후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6) 장건상(1882. 12. 19 - 1974. 5. 14)

부산사람이다. 부산 좌천재에서 한문을 배운뒤 육영재에서 12년간 신학문을 공부, 게일목사에게 영어를 배웠다. 1905년 동경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으나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발각되어 퇴학당한 후 게일 목사의 추천으로 1908년 발프레스 예비학교를 거쳐 인디애나주립대학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1917년 상하이 동제사에 가입했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외무위원이 되었다. 만주 지린에 의열단이 창립되자 후원자가 되어 의열단 활동을 도왔다. 1920년 의열단이 중국에서 폭탄을 매입하여 국내로 보낼 때(밀양폭탄반입사건) 안동현 중국세관에 있는 영국인 보잉

5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52) 김승, 앞의 논문, 2007, 186쪽

5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54) 『동아일보』 1921. 6. 3. ‘金斗鉉等の判決’. 『동아일보』 1921. 6. 28. ‘吳氏假出獄’.

에게 임정의외교차장으로 신임장을 보내 광재기·이성우 등의 거사를 막 후에서 지원하였다.<sup>55)</sup> 1921년 임시정부의 창조파 일원으로 조선공화정부를 베이징에서 조직하고 외무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동년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여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외업무를 수행하였다.<sup>56)</sup>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총장으로 있으면서 의열단의 입국활동 당시 필요한 혁명선언서 신임장과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며 황옥과 김시현의 폭탄반입 사건을 지원하였다.<sup>57)</sup>

이 외에도 장건상은 의열단의 고문이 되어 의열단의 폭탄제조와, 제조된 폭탄의 국내로 반입하는 일을 지휘하였으며<sup>58)</sup> 의열단원 김지섭의 이중교 폭파의거 또한 장건상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sup>59)</sup> 장건상의 의열단 지원은 의열단 창단부터 의열단의 활동이 와해되는 1926년까지 계속되었다. 경북지방에서 발각된 대규모 의열단 사건도 그의 지원이 있었기에 추진될 수 있었다.<sup>60)</sup> 1930년대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장건상은 1937년 형사에게 피체되어 국내로 압송<sup>61)</sup>되었으며 각종 고문을 받았다. 1941년 건강 악화로 기소유예 석방되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1942년 국내를 탈출하였다. 임시의정원의 개혁에 따라 그는 국무위원 겸 학무부장으로 선출되었고 1943년 조선민족혁명당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44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하다 해방을 맞이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sup>62)</sup>

55) 『동아일보』 1921. 3. 5. ‘密陽의 爆彈事件’.

56) 『동아일보』 1922. 1. 31. ‘上海의 高麗共產黨’.

57) 『동아일보』 1923. 1. 3. ‘四十四名의 代表者’.

58) 『동아일보』 1923. 6. 14. ‘義烈團事件 十二日에 豫審終結’. 『동아일보』 1923. 7. 24. ‘張志鎬事件에 關係된인가’. 『동아일보』 1923. 8. 9. ‘義烈團公判’.

59) 『동아일보』 1924. 4. 25. ‘二重橋爆彈犯人은 義烈團員 金社燮’.

60) 『동아일보』 1926. 11. 11. ‘慶北中大件事의 其一 義烈團前後活動眞相’.

61) 『동아일보』 1937. 6. 14. ‘上海서 逮捕된 張建相押來’.



## 7) 최장학(1909. 4. 11 - 1987. 9. 12)

부산 동래출신이다. 1927년 부산상업학교 재학 당시 김규직·양정육 등과 비밀결사 흑조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하다가 1928년 일경에 붙잡혔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을 선고받았다.<sup>63)</sup>

출감 후 1931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진가명’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32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 중국 장개석의 지원으로 독립운동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난징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최장학은 이곳에서 제 1입교생으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축성학을 가르쳤던 의열단 단원 권준이 최장학의 장인이다.<sup>64)</sup> 그가 의열단에 가입하고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교한 배경은 권준의 적극적인 권유로 생각된다.

졸업 후 난징과 충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1942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제 1지대에 편입되어 초모 공작 활동을 하며 적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포로 심문 등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은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sup>65)</sup>

## 8) 최천택(1897. 6. 1 - 1962. 11. 17)

부산 좌천동 출생이다. 부산진의 육영재에서 수학하다 부산공립상업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2학년 재학 중인 1912년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동국역사』를 등사하여 배포하다 일경에 검거, 10일 동안 구금되었다. 이듬해 박재혁·오재영 등과 구세단을 조직하였고 일경

6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63) 『동아일보』 1929. 9. 16. ‘革潮會事件 最高三年求刑’.

64) 한상도,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15-4, 1989, 178쪽

6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의 요시찰 대상으로 결국 체포되어 구세단을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sup>66)</sup>

의열단의 국내거사를 위해 김원봉으로부터 폭탄을 넘겨받고 부산으로 건너 온 박재혁과 함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을 도왔다. 의거 후 용두산공원 부근에서 박재혁을 기다리던 최천택은 공범자로 체포되었고 박재혁이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옥사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석방될 수 있었다.<sup>67)</sup>

1923년 7월경 의열단원인 강일을 만나 신임장·협박문·관공리사직권고문·의열단선전문 등을 받고 군자금 모금을 위해 활동하였다. 다음해 12월 합천에 있는 이종연 등 부호들을 찾아가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고 얼마 후 방면되었다.<sup>68)</sup>

부산청년연맹 부산진구락부 집행위원과 부회장 등을 역임<sup>69)</sup>하면서 부산지역에서 다양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신간회 부산지회 설립총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부산지회가 결성되자 서무부 담당하였고 부회장·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sup>70)</sup> 그의 활발한 독립활동으로 일제기간 중 여러 차례 일경에 구금되었으나<sup>71)</sup> 굴하지 않았고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9) 이동화(1896 - 1934. 3. 20)

부산 동래 출신이다. 1920년경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

66) 김승, 앞의 논문, 2007, 186쪽

67) 전성현, 앞의 논문, 148쪽.

68) 『동아일보』 1925. 1. 24. ‘富豪에게 現金強請’.

69) 『동아일보』 1925. 12. 12. ‘釜山靑年創立’.

70) 『동아일보』 1927. 8. 1. ‘新幹釜山會設立’. 『동아일보』 1928. 1. 3. ‘釜山新幹大會’.

71) 『부산일보』 1928. 6. 29. ‘釜山鎭靑年會員 三人을 突然檢擧’.

고 헝가리인 마잘로부터 폭탄제조기술을 습득하였다.<sup>72)</sup> 이동화는 1932년 10월 의열단의 중앙집행위원 후보에 선임되었으며 동년 중국 남경에 개설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6대의 군사조 교관<sup>73)</sup>으로 폭탄제조법 및 폭탄사용법·실탄사격 등을 가르치다 1934년 3월 20일경 폭탄 오발 사고로 순국하였다.<sup>74)</sup>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동화의 행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1923년을 전후하여 폭탄제조기술을 습득하게 된 배경,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활동 등 의열단 활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10) 박문희(1901. 10. 21 - 미상)

부산 동래구 북천동에서 출생하였으며 박차정의 오빠이다. 동래사립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경성성서학원을 졸업 한 후 전도사로 시무하였다. 1925년 북풍회, 경성청년회에 가입하여 동래청년연맹 창립을 주도하였고 신간회, 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의 사회개혁 운동가로 활약하였다. 1930년 동생 박차정을 중국으로 망명시켰으며 이후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조선혁명간부학교 1기생을 모집하였다.<sup>75)</sup> 이로 인해 피체되어 부산형무소에서 2년간 실형을 살았으며 대한민국은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7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73) <朝鮮革命幹部學校(軍官學校) 卒業者 送局에 관한 건>, 경찰정보 사(副本)(昭和 11年), 1936. 8.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4) 한상도, 앞의 논문, 168쪽.

75) 김재승, 「부산출신 의열단원 박문희의 항일활동」, 『항도부산』 25, 2009, 291~296쪽.

## V. 맺음말

### - 의열단과 부산지역 의열단원 파악에 따른 앞으로의 과제 제시

의열단이 창단과 활동 전반에 걸쳐 부산이라는 지역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은 박재혁을 비롯한 부산출신의 의열단원의 활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고의 시작에 의열단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였다. 의열단 창단과 사상, 단장 김원봉에 관해서는 연구 초기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의열의거를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단원들은 의거의 중요성과 함께 자료가 비교적 많은 이유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드물게 독립활동과 창작활동을 병행했던 인물의 경우도 남아 있는 창작물을 통해 인물을 조명하기도 했다. 안동은 유럽의 고장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었으나 일제침탈 이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사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의열투쟁은 작게는 대한제국기 순국·의열투쟁과 크게는 의병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불의에 항거하였다. 이한웅 순국을 시작으로 민영환·박성환 등의 순국, 장인환·전명운의거와 안중근의거 등 의열투쟁은 3.1운동 이전 우리민족의 독립 열망을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1910년 강제적으로 조선을 병합하였으며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른바 무단통치로 일컫는 폭압적인 식민정치를 감행하였다. 이에 폭발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3.1운동이다. 3.1운동은 민중의 대다수가 참가했던 비폭력 무저항운동이며 한국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린 사건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일제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희생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닌 전면적인 전

쟁을 통해 조국 독립을 되찾고자 하였으나 1920년을 전후한 식민지 현실은 당장 전쟁을 치를 독립군이 부족했다.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의지를 일제와 세계만방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1920년대의 의열투쟁이다. 이는 적은 인원,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독립운동 방략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열투쟁 단체의 조직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단체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이었다.

의열단은 밀양출신인 김원봉을 중심으로 신흥무관학교와 김원봉의 고향 선후배들을 규합하여 만들어진 의열투쟁단체이다. 밀양은 일제강점기 경부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부산에서 밀양·대구·인천을 잇는 일제의 수탈물자 수송지역이었다. 또한 밀양의 비옥한 토지는 일본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밀양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일본식 민통치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왔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독립운동은 밀양의 3.1운동과 밀양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의열단 활동이다.

그렇다면 의열단에 대한 정의를 김원봉과 밀양출신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의 역사를 먼저 접한 필자로서는 의열단의 관심이 밀양과 김원봉에게로만 집중되는 것에 적지 않은 의문을 품었다. 의열단의 첫 거사가 동향인 밀양, 진영부근이었음은 폭탄의 반입에 신중을 기하고 발설의 위험이 없는 인물로 하여금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밀양과 진영 폭탄반입 거사를 만회하기 위해 단행한 박재혁 의거는 파괴공작 대상이 부산경찰서임에 그 의미가 더해진다. 부산은 주지하다시피 일본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관계로 어느 지역보다 일본관계에서 피해가 컸다. 개항 이후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부산은 수탈의 대상이자 침략의 발판으로 이에 항거하는 수많은 독립운동 사건과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다. 분명 박재혁 의거

를 비롯하여 의열단과 관련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열단과 부산을 연결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출신으로 대한민국 공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는 현재 124명이다. 이 중 의열투쟁으로 나타나 있는 독립유공자는 오재영·최천택·김병태뿐이다. 이들은 박재혁과 함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기에 운동계열이 구분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의열단의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 사람 이외에도 의열단에 가입했고 이후에 김원봉과 관련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들이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지역사적 인물로서 연구되어 있어 그들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의열단과 관련된 부산의 독립운동가는 박재혁 김병태, 오재영, 최천택 이외에도 장건상, 박차정, 문시환, 김영주, 최장학, 이동화, 박문희가 있다. 장건상의 경우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차정 또한 부산의 여성독립운동가로 조명되어 1990년대 이후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박재혁조차도 현재 검색되는 논문은 한편 뿐이며 문시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천택과 오재영은 자신들이 남긴 유고와 몇몇의 연구결과로나마 그들의 독립행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 다른 의열단 관련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부분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이동화는 조선혁명군관학교에서 폭탄교관으로 활약했으며 1934년 폭탄사고로 사망한 사실만이 유일한 단서이다. 김병태 또한 박재혁의 의거를 도왔으며 군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한 사실만이 의열단과의 단서로 찾을 수 있다. 최장학의 경우도 군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 이외의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김영주는 박재혁의거를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1930

년 사망하여 10년 사이의 정확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새롭게 공훈받은 박문희도 의열단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독립운동가이다. 본 논고에서는 서훈을 받은 부산출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으나 서훈을 받지 못했지만 의열단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있다. 또한 부산출신은 아니지만 의열단 활동을 부산에서 전개하여 군자금을 모으고 폭탄이나 단원들을 숨겨주는 등의 활동을 했던 김재수와 같은 단원들도 있다. 이렇게 부산지역 독립운동가들 개개인의 독립활동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들의 정확한 활동과 행적을 찾아 의열단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출신 의열단원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부산의 지역적 특징과 더불어 부산의 독립운동가들과 김원봉, 의열단, 밀양출신의 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박문희가 조선혁명간부학교 훈련생 모집을 동생 박차정으로부터 요청받은 점, 국내로 파견되어 동래 출신들이 지원을 한 점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의열단 속에서 부산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관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의열단의 활동을 이야기함에 있어 부산에서 일어난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외에도 다수의 의열단원이 존재함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부산출신의 의열단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 김삼근 편저, 『부산출신독립투사집』, 태화인쇄사, 1982.  
 김 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김재승, 「부산출신 의열단원 박문희의 항일활동」, 『항도부산』 25, 2009.  
 박철규, 「3·1운동이후 부산지역 의열활동-박재혁을 중심으로」, 3·1운동 100주

년 학술대회, 2018.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깊은샘, 1948.

손세창 편, 『순국열사이한웅선생약사』, 문예홍보사, 1958.

염인호, 『김원봉연구』, 창작과비평사, 1992.

오영섭, 『한말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전성현, 『일제시기 동래선 건설과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형성』,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 2009.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최천택, 『일제하의 독립투쟁기』, 『부산의 고급』, 현대출판사, 1965.

한상도, 『김원봉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운영(1932~35)과 그 입교생』, 『한국학보』 15-4, 1989.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김인태 등 체포의 건』,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임정편), 1991(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검색일 : 2019. 2. 18.)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 고등경찰보고, 1921.

『용의조선인명부』, 국사편찬위원회, 1934.

『朝鮮革命幹部學校(軍官學校) 卒業者 送局에 관한 건』, 警察情報 寫(副本, 昭和 11年), 1936(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검색일 : 2019. 2. 18.)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5. 게재확정일 : 2018. 07. 18.



| Abstract |

Study about Uiyol-Dan's Members from Busan

Kim, Hye-Jin

Busan has had close relationship with Japan due to its location. It was the main route for the colonial exploitation and invasion of Japan, which gave rise to a large number of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Busan produced a number of members, including Park Jae-Hyuk, of Gallant Fighting Brigade(Uiyol-Dan : 義烈團). After being dealt with by mass media, Kim Bong-Won and his stories has attracted lots of attentions, who didn't before. The public, nevertheless, only knows fragmentary facts of him and his struggles.

Uiyol-Dan played crucial roles of mediating other Korean independence parties, but a majority of studies usually have focused on partial and brief researches.

A large proportion of early members of Uiyol-Dan were from Miryang, for which most studies of the fighting group have been carried out by researchers of and in the region. A number of members of the group from Busan had independence movements actively as well. They, such as Park Jae-Hyuk born in Busan, worked in various fields of activity as members of Chosun Hyeukmyung Ganbu Hakkyo and Chosun Uiyong-Dae.

Korean government, so far, has given decorations to one hundred and twenty four of independence fighters from Busan.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tegorized only three of them, Oh Jae-Young, Choi Chun-Taek and Kim Byung-Tae, into Gallant Fighting(Uiyeol Tujaeng : 義

烈鬪爭). They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because with Park Jae-Chun, they took part in the act of bombing Busan Police Station. Besides them, more fighters for independence were the members of Uiyol-Dan and acted with Kim Won-Bong. Uiyol-Dan, which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had many active members born in Busan which has its location close to Japan and Miryang. It means that the fighters from Busan took a part in the movements of Uiyol-Dan.

It is a laborious task to find various data about the fact that Park Jae-Jeong, Park Moon-Hee and Kim Won-Bong had close relationships and the movements Choi Jang-Hak and Yi Dong-Hwa made in Chosun Hyeukmyung Ganbu Hakkyo. This paper aims at studying about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Uiyol-Dan and revealing the additional necessities of researching the relation between Busan and the group.

**Key Words** : Uiyol-Dan, Uiyol, Park Jae-Hyuk, Kim Won-Bong, Busan Police Station, Busan, Gallant Fighting Brigade